**2023 국민대 회화전공 졸업전시 <Lump – Incarnate – Plate> 웹 디자인용 더미 텍스트**

**[서문]**

제23회 국민대학교 회화전공의 졸업전시는 41명의 참여자의 작업을 혼종적인 덩어리의 형태로 제시하려 한다.

어떠한 반죽 혹은 빵 덩어리에 신체성을 부여하는 행위는 계속되어 왔다. 마야 문명의 신화에서는 옥수수 반죽으로 인간이 탄생했다고 하며, 러시아의 콜로복은 둥근 빵에 인격이 깃들어 굴러다니고, 진저브래드 맨은 오븐에서 뛰어나와 식품의 지위에서 탈출한다. 그들은 접시에 올라가기를 거부하고 음식으로서는 금기시되는 땅을 딛기, 능동적이기, 더러워지기, 돌아다니기를 수행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암묵적 규칙은 전복당하며 그것의 목격자는 낯섦을 느끼게 된다.

요리되어서 접시 위에 얌전히 올라가기보다는 불특정 다수의 방문을 두드리고 낯섦에서 느껴지는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폴터가이스트; 무생물에 영혼이 씌워져서 움직이는 심령 현상과도 유사하다. 공포감을 조성하는 육체화되어 움직이는 덩어리들은 실제로 능동적이며 자발적인 것인가? 어떤 존재에 사로잡혀서 움직여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눈에 관측되지 않는 지점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고 동시에 그 이면을 파헤치려 부단히 노력한다. 41명의 참여자들은 일종의 심령학자가 되어 제23회 졸업 전시 <Lump – Incarnate – Plate>를 기점으로 이와 같은 규명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지점을 찾아내고, 감각하며, 그것을 타인에게 공유하려는 시도를 지속하고자 한다.

**[크레딧]**

**2023년 제23회 국민대학교 미술학부 회화전공 졸업전시**

**Lump - Incarnate - Plate**

**2023.12.05. (화) - 12.23. (토)**

**국민대학교 예술관 K-art Gallery, 203, 1F, 109, 111 전시실**

**주최** 국민대학교

**후원** 화방넷, 조형화방

**참여작가** 강민주, 강승호, 고이경, 곽채은, 김다혜, 김동우, 김민경, 김소영, 김승연, 김예은, 김우영, 김유정, 김희준, 남경진, 박주현, 박지원, 박희수, 백재연, 손원빈, 송인혁, 신지수, 안민영, 염정은, 오하나, 유지민, 윤수빈, 윤지혜, 이주영, 이주원, 이지원, 이지은, 이지호, 이찬영, 장혜원, 전우림, 전지호, 조수민, 조혜은, 진민경, 하은수, 현초아

**교수진** 구민자, 구수현, 권기동, 김보경, 김수연, 김웅현, 김지현, 김태진, 김호정, 김희영, 나광호, 박민희, 서동욱, 서해영, 신장식, 유장우, 이준형, 이희정, 임혜송, 정윤영, 조희원, 최영빈, 최지혜, 최태만, 한수정

**졸업준비위원회** 김유정, 남경진, 박희수, 손원빈, 이지원

**디자인** 김유정, 이주영

**홍보** 손원빈, 전우림

**설치** 강승호, 박희수, 이지호

**웹디자인** 및 개발 유환준

**도움** 큐피커

**[개인별 전시 타이틀]**(이미지의 김첨지, 국밥은 먹었니?와 같은 위치에 들어가는 것)

Saemaul Fitness

**[작품 캡션]**

남경진, <양자파동 : 피트니스>, 2023, 단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스테레오), 36분 34초

남경진, <새로움을 위한 발판>, 2023, 타원형의 카페트에 아크릴 물감으로 스텐실, 200.0 x 350.0cm

남경진, <Saemaul Fitness towel(displayed)>, 2023, 수건 걸이에 수건, 37.1 x 56.0 x 13.5cm

남경진, <Saemaul Fitness information desk>, 2023, 인포메이션 데스크, 수건, 티셔츠, 반바지, 유인물, 110.0 x 200.0 x 50.0cm

남경진, <Saemaul Fitness t-shirts (uniform)(displayed) >, 2023, 스테인리스 행거, 스테인리스 옷걸이, 티셔츠, 193.0 x 90.0 x 44.5cm

남경진, <변화–허물>, 2023, 티셔츠, 반바지, 가변 크기

남경진, <인간다움을 위한 유인물>, 2023, 종이에 디지털 인쇄, 28.7 x 20.0 x (6)cm, 60.0 x 65.5cm

**[작품 설명]**

<Saemaul Fitness>는 단채널 비디오 <양자파동 : 피트니스>를 중심으로 공간을 구성한 공간 기반의 혼합 매체 작업이다. <Saemaul Fitness>에서는 위장하고 있는 것, 원본과 복제, 현실 속의 거짓된 순간과 같은 주제를 가지고 미심쩍은 지점들을 느슨하게 엮어 나가기 시작한다.

단채널 비디오 <양자파동 : 피트니스>는 믿음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시작된다. 이러한 질문은 믿음을 통해서 금을 만들어 내는 연금술과 동묘 시장에서 발견한 동양 ORT의 진짜 금같이 보이는 양자파동 기능성 쥬얼리를 발견하는 것으로 연결된다. 동묘 시장의 짝퉁과 진품의 위계 없음과 동묘 시장 안쪽에 존재하는 ‘동관왕묘’의 엄청난 무게의 동과 진짜 금으로 도금된 ‘금동관우좌상’이 교차하며 짝퉁이 끝없이 원본에 가까워지려는 구조에서 유교의 인간다움을 찾아낸다. 유교에서는 운동하는 것 또한 이상적인 인간, 인간다워지는 것에 일조한다고 본다. 동묘 시장의 옷 더미 안에서 발견된 ‘Saemaul Fitness’의 티셔츠에 적힌 문구 “You Have to Strive for Your Freshness.”라는 말은 퇴계 이황의 활인심방에 저술된 도인기공법의 목표와 일치되며 피트니스 센터의 트레이너가 진행하는 몸짓을 유교 랜드 아래의 노인이 모방-수행하게 된다.

단채널 비디오를 둘러싼 인포메이션 데스크, 피트니스 센터의 운동복, 그리고 수건과 그래픽이 포함된 카페트는 <양자파동 : 피트니스>를 관람하는 관객에게 환경으로 제시되며 어느 지점이 조작된 것인지, 어느 지점은 진실한 증거인지 혼란을 가중시킨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미신, 믿음, 종교, 사상은 믿을 수 있는 것인가?" "믿는다는 감정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가?"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는 것들은 무너지지 않는 기반을 가지고 있는가?"와 같은 미심쩍은 질문을 던지게 되고, 우리가 딛고 있는 바닥을 재인식하고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게 된다.